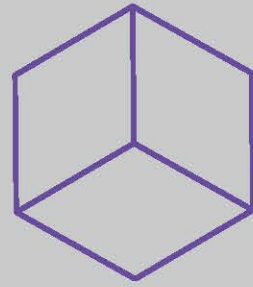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일시 | 2020. 7. 10 (금) 14:00~16: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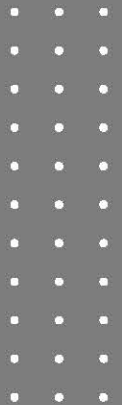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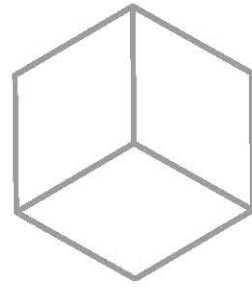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일시 | 2020. 7. 10 (금) 14:00~16: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30	발표	<p>좌장: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교수)</p> <p>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p> <p>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p>
14:30-14:40	휴식	
14:40-16:00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주현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경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본부장) ○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원재 (LAB2050 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p>*이상 가나다순</p>

목 차

발표

- ▣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1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

토론

- 강주현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39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1
박경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본부장) 43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5
이원재 (LAB2050 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47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53

| 발표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



I. 문제 제기

- 코로나19와 가족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를 검색해본 결과, 돌봄문제, 자녀교육문제, 재택근무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 일 관련문제, 가족관계문제, 정부지원관련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으며,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각급 학교 휴교와 보육 시설 휴원으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긴급돌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아동을 비롯하여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 전체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음
 - 돌봄 공백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였고, 일부 다문화가족 또는 조손 가구는 돌봄 공백 이외에도 온라인 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 또한 온라인 개학이나 재택근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한 가족 간 접촉 시간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나타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보고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가족 간 접촉시간 증가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가족이 모두 함께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 심해져"... 일부 전문의 상담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0:22 수정 : 2020.06.03. 10:22

(중략)학부모 참여자의 절반(46.5%)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과 관련해 가족과도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가족간 갈등 이유로는 '집에만 있다 보니 부딪히고 싸움이 빈번해져서'(29.6%)와 '외출부족으로 자녀가 힘들어함'(30.0%)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았다. 또한 '미뤄졌던 등교, 학원 일정으로 인한 자녀 학업 걱정'(25.8%) 그리고 '감염증 우려로 잔소리가 늘었다'(13.8%)등의 이유가 확인되며 실상이 전해졌다.(중략)

- 코로나19는 이전의 감염병과 달리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범위도 넓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였고 그 결과 일상생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 초유의 경험임
-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족생활에 끼친 영향이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 19 시기 가족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및 가족 정책 의제를 도출하고자 함

II. 실태조사를 통해 본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 양상

1. 코로나19와 가족생활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 경제적 상황 변화, 가족관계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여 관련 대응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 (조사 대상) 전국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국민
- (조사 규모) 1,500명
- (표본 설계)
 - 모집단: 행정안전부, 2020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 소득계층: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제값 비율을 고려하여 1분위 20%, 2분위 25%, 3분위 25%, 4분위 30%로 할당
 - 성별: 남성 600명, 여성 900명으로 할당
 - 자녀 연령대와 학교급 고려 균등배분, 미취학 자녀 500명, 초등학생 500명, 중고생 500명으로 할당

〈표 II-1-1〉 표본 배분

전체		남성			여성		
		미취학	초등학생	중고생	미취학	초등학생	중고생
전체		200	200	200	300	300	300
1분위	300	40	40	40	60	60	60
2분위	375	50	50	50	75	75	75
3분위	375	50	50	50	75	75	75
4분위	450	60	60	60	90	90	90

- (조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웹조사(CAWI :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 (조사 기간) 2020년 6월 1일 ~ 6월 7일
- (조사 내용)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등

나. 응답자 특성

- 성별: 남성 40.0%, 여성 60.0%
- 연령: 30대 이하 36.1%, 40대 51.8%, 50대 이상 12.1%

-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6.7%, 300-499만원 이하 31.9%,
500-699만원 이하 25.4%, 700만원 이상 16.0%
- 맞벌이 여부: 맞벌이 48.3%, 비맞벌이 46.5%, 둘 다 경제활동 안 함 5.2%
- 성별 맞벌이 비중: 남성 44.8%, 여성 50.6%, 여성의 맞벌이 비중 높음

〈표 II-1-2〉 성별 맞벌이 여부

	맞벌이	외벌이	경제활동안함
남성	269명(44.8%)	307명(51.2%)	24명(4.0%)
여성	455명(50.6%)	391명(43.4%)	54명(6.0%)
전체	724명(48.3%)	698명(46.5%)	78명(5.2%)

2. 조사 결과(1): 자녀 학교급별 돌봄 공백 대응 관련

- 코로나로 인한 휴원 휴교,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 긴급돌봄 이용 및 사유, 자녀 홀로 있는 시간, 온라인 학습 진행 등 자녀 돌봄 문제에 대하여 미취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가. 미취학 자녀 돌봄

- 긴급돌봄 이용
 - “처음부터 이용” 14.7%, “조금 지난 뒤 이용” 32.2%, “이용 안 함” 53.1%
 - “처음부터 이용” 비율은 경북권이 8.0%로 가장 낮고 전라권이 가장 높음. “이용 안 함” 비율은 경북권이 가장 높고 수도권-경남권의 순. 이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른 차이일 것임
 - 맞벌이 여부별로 보면 “처음부터 이용”이 맞벌이 25.6%로 외벌이 5.4%에 비해 20.2% 높음. “이용 안 함”은 맞벌이 38.4%, 외벌이 66.1%로 맞벌이가 낮음

〈표 II-2-1〉 긴급돌봄 이용 여부- 미취학 아동

		사례수	긴급돌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긴급돌봄 시작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부터 이용했다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았다
전체		(633)	14.7	32.2	53.1
권역	수도권	(384)	14.8	29.4	55.7
	충청권	(67)	16.4	46.3	37.3
	경북권	(50)	8.0	34.0	58.0
	경남권	(87)	14.9	31.0	54.0
	전라권	(45)	17.8	35.6	46.7

		사례수	긴급돌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긴급돌봄 시작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부터 이용했다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았다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97)	25.6	36.0	38.4
	외벌이	(313)	5.4	28.4	66.1
	경제활동 안함	(23)	0.0	34.8	65.2

- 긴급돌봄을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감염우려”가 가장 많음
 - 2위, 3위 이유는 맞벌이는 “긴급돌봄 신청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돌봄기관의 안전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긴급돌봄운영방식이 불안해서”로 긴급돌봄기관의 문제로 인한 사유가 다수임
 - 외벌이는 “긴급돌봄신청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껴서”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세 번째로 나타남

〈표 II-2-2〉 긴급돌봄을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미취학 아동

		사례수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 될까봐 불안 해서	긴급돌봄 신청 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긴급돌봄 운영 방식이 불안해서	돌봄 기관의 안전 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자녀가 다니던 돌봄기관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	긴급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	기타
전체		(204)	69.1	23.5	16.2	13.7	13.2	8.8	4.9	7.4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107)	64.5	29.9	20.6	21.5	11.2	13.1	6.5	9.3
	외벌이	(89)	74.2	16.9	12.4	5.6	15.7	4.5	2.2	5.6
	경제활동 안함	(8)	75.0	12.5	0.0	0.0	12.5	0.0	12.5	0.0

- 긴급돌봄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감염우려”가 가장 비중이 높고,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돌봄기관의 안전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순임
 - 그러나 2위 이유인 “이용의 필요성을 못느껴서”에 대해 맞벌이는 27.2%이며 외벌이는 44.0%로 외벌이가 더 높음. 맞벌이의 경우 긴급돌봄 수요가 더 높았음을 시사함

〈표 II-2-3〉 긴급돌봄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이유- 미취학 아동

		사례수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 될까봐 불안 해서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서	돌봄 기관의 안전 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긴급돌봄 운영 방식이 불안해서	긴급돌봄 신청 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긴급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	자녀가 다니던 돌봄기관에 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336)	56.0	38.1	17.3	14.6	6.8	5.7	3.9	7.7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114)	57.0	27.2	21.9	21.9	9.6	7.9	4.4	11.4
	외벌이	(207)	56.0	44.0	14.5	11.1	5.3	4.8	3.4	4.8
	경제활동 안함	(15)	46.7	40.0	20.0	6.7	6.7	0.0	6.7	20.0

○ 긴급돌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

- 맞벌이는 “부모님 등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어서”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재택근무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임
- 외벌이는 “원래부터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어서”가 가장 많음

〈표 II-2-4〉 긴급돌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 미취학 아동

		사례수	원래부터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어서	부모님 등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 주어서	재택 근무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가족돌봄 휴가 이용이 가능해서	배우자가 돌볼 수 있어서	가정 방문 아이 돌보미/ 육아가사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자녀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어서
	전체	(155)	64.5	16.1	11.6	3.2	1.9	0.6	0.6	0.6	0.6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43)	20.9	41.9	25.6	7.0	0.0	0.0	2.3	0.0	2.3
	외벌이	(105)	81.0	5.7	6.7	1.9	2.9	1.0	0.0	1.0	0.0
	경제활동 안함	(7)	85.7	14.3	0.0	0.0	0.0	0.0	0.0	0.0	0.0

○ 재가돌봄서비스 이용 및 변화

- 맞벌이는 13.5%에서 9.8%로, 외벌이는 4.8%에서 1.6%로 감소.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가정방문 돌보미나 도우미 이용 감소 확인
- 이용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감염 우려, 세 번째는 안전위생에 대한 불신이었음
-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유는 외벌이는 원래부터 가정에서 돌보고 있어서가 가장 많고, 맞벌이는 친인척이 돌봐주어서,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재택근무를 하여 순으로 나타남

〈표 II-2-5〉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육아가사도우미 이용 여부- 미취학 아동

		사례수	코로나19 확산 이전		코로나19 확산 이후		Gap (이후-이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633)	8.7	91.3	5.4	94.6	-3.3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97)	13.5	86.5	9.8	90.2	-3.7
	외벌이	(313)	4.8	95.2	1.6	98.4	-3.2
	경제활동 안함	(23)	0.0	100.0	0.0	100.0	0.0

〈표 II-2-6〉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 방문 돌보미/도우미 미이용 이유- 미취학 아동

		사례수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서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 될까봐 불안해서	아이 돌보미/ 육아가사 도우미의 안전 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인근에 아이 돌보미/ 육아가사 도우미 제공 기관이 없어서	아이 돌보미/ 육아가사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짧아서	자녀를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	금전적 으로 부담이 되어서	기타
전체		(599)	58.6	36.6	24.4	6.0	5.2	2.2	2.0	3.5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68)	52.6	37.7	28.7	8.6	7.8	3.4	1.5	4.9
	외벌이	(308)	63.0	37.0	21.8	3.9	3.2	1.0	2.6	2.6
	경제활동 안함	(23)	69.6	17.4	8.7	4.3	0.0	4.3	0.0	0.0

〈표 II-2-7〉 가정 방문 돌보미/도우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 미취학 아동

		사례수	원래부터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어서	부모님 등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 주어서	보육시설, 유치원 등 돌봄기관 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재택 근무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가족돌봄 휴가 이용이 가능해서	연차를 이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기타
전체		(351)	48.7	18.2	16.0	10.5	2.3	1.7	2.6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141)	12.1	38.3	24.1	17.0	2.8	3.5	2.1
	외벌이	(194)	73.2	4.6	10.8	5.7	2.1	0.5	3.1
	경제활동 안함	(16)	75.0	6.3	6.3	12.5	0.0	0.0	0.0

○ 나홀로 시간

- 코로나 19 확산 이후 미취학 아동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8.8%, 외벌이 3.5%임. 평균시간은 맞벌이 2시간 46분, 외벌이는 2시간 13분임

〈표 II-2-8〉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미취학 아동

		사례수	자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여부		
			예	평균 시간(분)	아니오
전체		(633)	6.2	152.1	93.8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97)	8.8	166.9	91.2
	외벌이	(313)	3.5	133.7	96.5
	경제활동 안함	(23)	8.7	60.0	91.3

○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자녀돌봄 방법에 대한 의견

-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자녀돌봄에 대한 의견은 외벌이는 91.7%가 직접 돌봄을 선택함. 반면 맞벌이는 직접 돌봄 71.0%, 돌봄기관 21.9%의 순으로 나타나 직접 돌보지 않으면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II-2-9〉 향후 유사 상황 시 자녀 돌보는 방법- 미취학 아동

		사례수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돌봄	돌봄 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이, 형제자매 끼리 집에 있음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모름
전체		(633)	81.8	13.4	2.4	1.7	0.5	0.2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97)	71.0	21.9	4.0	2.4	0.7	0.0
	외벌이	(313)	91.7	5.8	0.6	1.3	0.3	0.3
	경제활동 안함	(23)	87.0	8.7	4.3	0.0	0.0	0.0

나. 초등학생 자녀 돌봄

○ 긴급돌봄 이용

- “처음부터 이용” 6.6%, “조금 지난 뒤 이용” 8.4%, “이용 안 함” 85.0%
- “이용 안 함” 비율은 경북권이 가장 높고 수도권-경남권의 순. 이는 코로나 19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른 차이일 것임
- 맞벌이 여부별로 보면 “처음부터 이용”이 맞벌이 12.3%로 외벌이 1.4%에 비해 10.9% 높음. “이용 안 함”은 맞벌이 75.1%, 외벌이 93.6%로 외벌이는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2-10〉 긴급돌봄 이용 여부- 초등학생

	사례수	긴급돌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긴급돌봄 시작 후 시간이 조금 지난 뒤부터 이용했다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았다
전체	(608)	6.6	8.4	85.0
권역	수도권	(378)	7.1	85.7
	충청권	(51)	3.9	80.4
	경북권	(48)	4.2	89.6
	경남권	(79)	6.3	83.5
	전라권	(52)	7.7	82.7
경제활동 여부	맞벌이	(285)	12.3	75.1
	외벌이	(282)	1.4	93.6
	경제활동 안함	(41)	2.4	95.1

- 긴급돌봄을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감염우려”가 가장 많음
 - 2위, 3위 이유로는 맞벌이는 “긴급돌봄 운영방식이 불안해서”, “긴급돌봄 신청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기관의 안전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임. 한편 다니는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하지 않아서 응답도 13.9%로 나타남
 - 외벌이는 “긴급돌봄 운영방식이 불안해서”, “긴급돌봄운영시간이 짧아서” 로 나타남

〈표 II-2-11〉 긴급돌봄을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은 이유- 초등학생

	사례수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될까봐 불안해서	긴급돌봄 운영 방식이 불안해서	긴급돌봄 신청 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긴급 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	기관의 안전 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자녀가 다니던 기관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
전체	(51)	52.9	27.5	19.6	19.6	17.6	11.8	9.8	9.8
경제활동 여부	맞벌이	(36)	52.8	30.6	22.2	19.4	22.2	13.9	11.1
	외벌이	(14)	57.1	21.4	7.1	21.4	7.1	7.1	7.1
	경제활동 안함	(1)	0.0	0.0	100.0	0.0	0.0	0.0	0.0

- 긴급돌봄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맞벌이는 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 47.7%, 감염우려 46.7%임
 - 반면 외벌이는 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64.0%로 높았음

〈표 II-2-12〉 긴급돌봄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이유- 초등학생

		사례수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될까봐 불안해서	긴급돌봄 운영 방식이 불안해서	기관의 안전 위생을 신뢰 할 수 없어서	긴급 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	자녀가 다니던 기관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	긴급돌봄 신청 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	기타
	전체	(517)	56.3	41.8	10.1	8.5	6.0	3.9	3.9	8.1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14)	47.7	46.7	14.0	9.3	8.9	5.1	4.7	8.4
	외벌이	(264)	64.0	38.3	7.6	7.6	4.2	2.7	2.7	8.0
	경제활동 안함	(39)	51.3	38.5	5.1	10.3	2.6	5.1	7.7	7.7

○ 긴급돌봄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

- 맞벌이는 자녀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서가 33.0%, 원래부터 가정에서 돌보고 있어서 20.8%, 친인척이 돌봐주어서 20.8%임
- 외벌이는 직접 돌보고 있어서가 75.3%로 다수임

〈표 II-2-13〉 긴급돌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 초등학생

		사례수	원래부터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어서	자녀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서	부모님 등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 주어서	재택 근무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자녀들 끼리 집에 있을 수 있어서	가정에 방문하는 아이 돌보미 또는 육아가사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어서	가족돌봄 휴가 이용이 가능해서	기타
	전체	(296)	55.4	16.6	11.1	9.5	1.7	1.4	1.4	1.0	2.0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106)	20.8	33.0	20.8	15.1	2.8	3.8	1.9	0.9	0.9
	외벌이	(170)	75.3	8.2	4.7	7.1	0.6	0.0	0.6	1.2	2.4
	경제활동 안함	(20)	70.0	0.0	15.0	0.0	5.0	0.0	5.0	0.0	5.0

○ 재가돌봄서비스 이용 및 변화

- 아이돌보미나 육아가사도우미 이용을 보면 맞벌이는 8.4%에서 7.4%로, 외벌이는 2.5%에서 2.1%로 감소.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 가정방문 돌보미나 도우미 이용을 감축하였으나 감소 비율은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감염우려, 세 번째는 안전위생에 대한 불신이었음

-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유는 외별이와 맞벌이 모두 원래부터 가정에서 돌보고 있어서가 가장 많고, 두 번째 사유를 보면 맞벌이는 친인척이 돌봐주어서, 재택근무를 하여 순임

〈표 II-2-14〉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육아가사도우미 이용 여부-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산 이전		코로나19 확산 이후		Gap (이후-이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608)	5.3	94.7	4.6	95.4	-0.7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85)	8.4	91.6	7.4	92.6	-1.1
	외별이	(282)	2.5	97.5	2.1	97.9	-0.4
	경제활동 안함	(41)	2.4	97.6	2.4	97.6	0.0

〈표 II-2-15〉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 방문 돌보미/도우미 미이용 이유- 초등학생

		사례수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자녀가 코로나 19에 감염 될까봐 불안해서	아이 돌보미 또는 육아가사도 우미의 안전 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인근에 아이 돌보미 또는 육아가사도 우미 제공 기관이 없어서	아이 돌보미 또는 육아가사도 우미의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짧아서	금전적 으로 부담이 되어서	자녀를 돌봐줄 가족이 있어서	기타
전체		(580)	67.1	28.8	20.0	5.2	4.1	1.9	1.6	2.9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64)	59.5	31.8	23.5	4.9	5.3	1.9	3.0	3.8
	외별이	(276)	74.3	27.5	17.8	4.0	2.5	1.8	0.4	2.2
	경제활동 안함	(40)	67.5	17.5	12.5	15.0	7.5	2.5	0.0	2.5

〈표 II-2-16〉 가정 방문 돌보미/도우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 초등학생

		사례수	원래부터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어서	부모님 등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 주어서	재택 근무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자녀들 끼리 집에 있을 수 있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가족돌봄 휴가 이용이 가능해서	자녀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서	기타
전체		(389)	62.7	15.2	10.5	3.6	2.6	2.3	1.0	1.0	1.0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157)	35.0	29.9	14.0	6.4	5.7	5.1	0.6	1.9	1.3
	외별이	(205)	83.4	3.4	7.8	1.5	0.5	0.5	1.5	0.5	1.0
	경제활동 안함	(27)	66.7	18.5	11.1	3.7	0.0	0.0	0.0	0.0	0.0

○ 나홀로 시간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초등학교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50.5%, 외벌이 26.6%임
- 평균시간은 맞벌이는 약 4시간 45분, 외벌이는 2시간 23분임

〈표 II-2-17〉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초등학교

		사례수	자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여부		
			예	평균 시간(분)	아니오
전체		(608)	38.3	234.0	61.7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85)	50.5	285.2	49.5
	외벌이	(282)	26.6	143.2	73.4
	경제활동 안함	(41)	34.1	193.6	65.9

○ 온라인 학습

- 온라인 학습 진행 형태는 외벌이는 부모가 지켜보며 도움을 주는 경우가 74.5%로 가장 많았으나 맞벌이는 자녀 혼자서 학습함 44.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모가 도와줌으로 37.5%임
- 맞벌이의 경우 긴급돌봄기관에서 온라인 학습한 경우도 9.1%이며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4.9%가 있음
- 온라인 개학에 따른 자녀학습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는 맞벌이 80.2%, 외벌이 72.3%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부담을 느낌

〈표 II-2-18〉 온라인 학습 진행 형태- 초등학교

		사례수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줌	자녀 혼자서 학습함	긴급돌봄 기관에서 온라인 학습함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음	가족이 도움을 줌	학습하지 않음	교육청 등 온라인 학습 지원 인력이 가정방문 지원해줌
전체		(608)	56.9	32.7	5.1	2.5	2.1	0.3	0.3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85)	37.5	44.2	9.1	4.9	3.9	0.4	0.0
	외벌이	(282)	74.5	22.0	1.8	0.4	0.7	0.4	0.4
	경제활동 안함	(41)	70.7	26.8	0.0	0.0	0.0	0.0	2.4

〈표 II-2-19〉 온라인 개학에 따른 자녀 학습 부담감- 초등학교

		사례수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전체		(606)	5.4	18.3	56.3	20.0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84)	3.9	15.8	57.7	22.5
	외벌이	(281)	6.4	21.4	55.2	17.1
	경제활동 안함	(41)	9.8	14.6	53.7	22.0

○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자녀돌봄 방법에 대한 의견

-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자녀돌봄에 대한 의견은 외벌이는 90.1%가 직접 돌봄을 선택함. 반면 맞벌이는 직접 돌봄 61.1%, 돌보는 사람 없이 형제자매끼리 집에 있음 20.7%, 돌봄기관 14.0%의 순으로 나타나 직접 돌보지 않으면 자녀 홀로 집에 두겠다는 경우가 많음

〈표 II-2-20〉 향후 유사 상황 시 자녀 돌보는 방법- 초등학교

		사례수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돌봄	돌보는 사람 없이, 형제자매 끼리 집에 있음	돌봄기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기타
전체		(608)	76.2	11.8	8.6	1.5	1.0	1.0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285)	61.1	20.7	14.0	2.1	1.4	0.7
	외벌이	(282)	90.1	3.2	3.5	1.1	0.7	1.4
	경제활동 안함	(41)	85.4	9.8	4.9	0.0	0.0	0.0

다. 중고등학생 자녀 돌봄

○ 나홀로 시간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중고생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85.7%, 외벌이 59.6%임
- 평균시간은 맞벌이는 약 6시간 26분, 외벌이는 4시간 15분임

〈표 II-2-21〉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중고등학생

		사례수	자녀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여부		
			예	아니오	
				평균 시간(분)	
전체		(606)	72.3	331.4	27.7
경제 활동 여부	맞벌이	(308)	85.7	386.3	14.3
	외벌이	(270)	59.6	255.4	40.4
	경제활동 안함	(28)	46.4	156.5	53.6

○ 온라인 학습

- 온라인 학습 진행 형태는 외별이와 맞별이 모두 자녀 혼자서 학습한 비율이 가장 많음. 부모가 도움을 준 비율은 맞별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맞별이가 높음
- 온라인 개학에 따른 자녀학습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는 맞별이 71.1%, 외별이 64.9%로 맞별이 중 부담감이 있는 비율이 약간 높음

〈표 II-2-22〉 온라인 학습 진행 형태- 중고등학생

		사례수	자녀 혼자서 학습함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줌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음	교육청 등의 온라인 학습 지원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지원해줌	긴급돌봄 기관에서 온라인 학습함	가족이 도움을 줌
전체		(606)	84.3	11.2	3.0	0.7	0.5	0.3
경제활동 여부	맞별이	(308)	85.4	7.8	4.5	1.3	0.6	0.3
	외별이	(270)	82.6	15.2	1.5	0.0	0.4	0.4
	경제활동 안함	(28)	89.3	10.7	0.0	0.0	0.0	0.0

〈표 II-2-23〉 온라인 개학에 따른 자녀 학습 부담감- 중고등학생

		사례수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전체		(606)	5.3	26.4	55.1	13.2
경제활동 여부	맞별이	(308)	5.2	23.7	58.4	12.7
	외별이	(270)	5.9	29.3	51.9	13.0
	경제활동 안함	(28)	0.0	28.6	50.0	21.4

라.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긴급돌봄 “이용 안 함” 비율이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생보다 낮게 나타남. 즉 미취학 자녀가 긴급돌봄을 더 많이 이용함. 초등학생은 집에 혼자 둘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일 것임. 또 미취학과 초등학생 모두 맞별이 가구에서 긴급돌봄을 더 많이 이용함
 - (미취학 자녀) 전체 53.1%, 맞별이 38.4%
 - (초등학생 자녀) 전체 85.0%, 맞별이 75.1%
- 긴급돌봄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유는 “감염우려”가 가장 많았음. 이는 집단 돌봄 방식인 긴급돌봄에 대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을 확인해주는 결과로 향후 기관돌봄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 기관의 위생 안전에 대하여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함

- 아이돌보미나 육아가사도우미 이용도 감소함. 사유를 보면 보건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재가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도 기관돌봄과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보건위생 안전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미취학 자녀 전체 8.7%에서 5.4%로, 맞벌이 13.5%에서 9.8%로 감소
 - 초등학생 자녀 전체 5.3%에서 4.6%로, 맞벌이 8.4%에서 7.4%로 감소
 - 휴원, 휴교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가 더 많고, 자녀 홀로 있는 시간은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맞벌이일수록 더 길었음.
 - (미취학 자녀) 맞벌이(8.8%/하루 평균 2시간 46분), 외벌이(3.5%/하루 평균 2시간 13분)
 - (초등학생) 맞벌이(50.5%/하루 평균 4시간 45분), 외벌이(26.6%/하루 평균 2시간 23분)
 - (중고등학생) 맞벌이(85.7%/하루 평균 6시간 26분), 외벌이(59.6%/하루 평균 4시간 15분)
- ※ (비교) 2015년 가족실태조사
 (초등학생 방과후 기관 이용 이후 나홀로 시간) 거의 없음 63.0%, 1시간 정도 16.8%, 2시간 정도 10.3%, 3시간 정도 5.6%, 4시간 이상 4.3%
- 온라인 학습 진행 상황을 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는 초중고 모두 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고 긴급돌봄기관 이용 또는 사교육기관 도움을 받는 비율이 외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초등학생) 외벌이는 부모가 도와준 비율(74.5%)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맞벌이는 자녀가 혼자 학습함(44.2%), 부모가 도와줌(37.5%) 순임. 맞벌이는 긴급돌봄기관에서 학습 9.1%이며 사교육 기관 도움도 4.9%로 외벌이보다 높았음
 - (중고등학생) 맞벌이, 외벌이 모두 자녀 스스로 학습 비율이 높음. 그러나 맞벌이는 부모가 도와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교육기관 도움 비율은 높음
 -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자녀돌봄 방법에 대한 의견을 보면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자녀 모두 직접 돌봄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맞벌이, 외벌이 모두 동일함. 단, 맞벌이는 외벌이에 비해 직접 돌봄을 선택한 비중은 낮게 나타남

2) 돌봄 공백 관련 시사점

- ⇒돌봄 공백 문제는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돌봄 공백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 중 절반이, 초등학생은 85%가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감염에 대한 우려로 나타남. 아이돌보미나 육아도우미 등 가정방문 인력 활용도 약간 감소함. 즉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단 돌봄이나 외부인의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음이 확인됨
-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본인이 직접 하거나 어려울 경우 가족자원을 동원하여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화된 돌봄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임

- 따라서 향후 돌봄 기관과 재가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위생 안전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위생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이돌보미는 이동이 많고 다수의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동과 아이돌보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감염병 관련 보증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제 개선, 재택근무 활성화 및 재택근무 여건 지원 등 고용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도 필요함
 - 현행 가족돌봄휴가제는 아동의 직계가족이 이용할 수 있음. 감염병 심각 단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확대가족 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명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조사 결과(2): 자녀 돌봄 어려움 및 분담 등

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과 돌봄 분담

- 자녀 돌봄 관련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70% 이상이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함
 - “자녀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80.8%가,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80.2%가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함.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76.2%가 어려움을 느낌
 - 맞벌이 여부와 성별로 보면 자녀 돌봄 관련 항목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높은 집단은 남성보다 여성이며, 여성 중에서 맞벌이 여성임

〈표 II-3-1〉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 비중- 맞벌이 및 성별

		사례수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	자녀와 놀이를 하는 것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학습 지도를 직접 하는 것	자녀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	자녀의 학습이나 학업을 지원하는 것
전체		(1422)	80.2	63.0	76.2	72.1	80.8	75.1
맞벌이	남성	(269)	77.7	61.8	79.6	71.0	78.5	73.3
	여성	(455)	84.2	64.9	77.6	74.5	84.6	77.8
외벌이	남성	(307)	76.1	64.8	73.0	72.4	77.8	73.6
	여성	(391)	80.6	60.3	74.9	70.1	80.3	74.2

주: 어려움을 느꼈다+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응답 비율임

- 자녀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생활습관 관리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식사 챙기기이며, 미취학 자녀는 스트레스 관리, 함께 놀아주기 등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미취학 자녀는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79.9%, “자녀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 79.8%이며, “자녀와 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78.4%임
 - 초등학생은 “자녀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 85.2%,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 84.9%임
 - 중고등학생은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 81.8%, “자녀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 79.1%임

〈표 II-3-2〉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 어려움 비중

	사례수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	자녀와 놀이를 하는 것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학습 지도를 직접 하는 것	자녀의 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것	자녀의 학습이나 학업을 지원하는 것
미취학아동	(633)	77.4	78.4	79.9	74.1	79.8	71.6
초등학생	(608)	84.9	71.6	78.2	80.4	85.2	80.6
중고등학생	(609)	81.8	43.4	72.2	66.8	79.1	75.7

주: 어려움을 느꼈다+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응답 비율임

-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변화를 보면 여성은 “이전과 비교하여 더 많이 한” 비율이 “배우자가 더 하였다”보다 높아 남성과 차이를 보임.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은 대체로 여성이 하였음을 시사함
 - 이전과 비교하여 본인이 더 많이 한 비율에서 맞벌이 여성과 외벌이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에서 여성은 경제활동 여부에 무관하게 돌봄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임

〈표 II-3-3〉 코로나19 확산 이전 주로 자녀 돌봄 사람

		사례수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등하게 돌봄
맞벌이	남성	(269)	5.9	47.6	46.5
	여성	(455)	67.9	2.0	30.1
외벌이	남성	(303)	5.0	76.9	18.2
	여성	(367)	89.9	2.7	7.4

〈표 II-3-4〉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자녀 돌봄 분담 변화 여부

		사례수	이전과 비교하여 본인이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변화없다	배우자가 더 많이 하였다
맞벌이	남성	(269)	22.7	54.3	23.0
	여성	(455)	40.7	51.9	7.5
외벌이	남성	(303)	18.8	47.2	34.0
	여성	(367)	38.7	55.3	6.0

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 사용¹⁾

-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높지 않음. 본인이 사용한 경우는 남성 11.4%, 여성 14.5%, 배우자가 사용한 경우는 남성 18.1%, 여성 8.7%로 남성의 배우자인 여성이 사용한 비율이 높았음
 - 본인 사용과 배우자 사용을 한꺼번에 고려하면 여성이 사용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 가족돌봄휴가 미사용 사유는 “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 공백, 회사 사정 등 눈치가 보여서”가 가장 많았음. 두 번째는 “자녀를 돌볼 다른 사람이 있어서”임

〈표 II-3-5〉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돌봄휴가 사용 여부

	사례수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례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전체	(871)	12.9	(828)	11.2
남성	(464)	11.4	(227)	18.1
여성	(407)	14.5	(601)	8.7

주: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만 분석

〈표 II-3-6〉 가족돌봄휴가 미사용 이유

구분		사례수	가족돌봄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 하였으나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무급 또는 지원액이 적어서	기간이 짧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녀를 돌볼 다른 사람이 있어서	배우자가 신청해서	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공백, 회사사정 등 눈치가 보여서 미신청	기타
본인	전체	(751)	15.6	2.3	11.3	6.4	20.2	0.8	34.5	8.9
	남성	(410)	20.0	2.2	13.4	5.9	23.9	1.2	29.8	3.7
	여성	(341)	10.3	2.3	8.8	7.0	15.8	0.3	40.2	15.2
배우자	전체	(724)	15.7	1.9	8.0	4.7	31.2	0.1	31.5	6.8
	남성	(184)	19.0	3.3	12.5	7.6	22.3	0.0	30.4	4.9
	여성	(540)	14.6	1.5	6.5	3.7	34.3	0.2	31.9	7.4

주: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만 분석

- 자녀 돌봄을 위해 본인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남성 40.1%, 여성 41.8%이며 배우자가 사용한 경우는 남성 41.4%, 여성 23.5%임

1) 본인과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분석함

- 돌봄을 위한 연차 사용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서 돌봄의 여성 책임을 확인함. 또한 연차 사용일 평균도 여성이 남성보다 길었음

〈표 II-3-7〉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돌봄을 위한 연차 사용 여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의 연차 사용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차 사용		
	사례수	사용함 비율	평균일수(표준편차)	사례수	사용함 비율	
남성	(464)	40.1	4.27(3.70)	(227)	41.4	4.70(4.23)
여성	(407)	41.8	4.56(3.61)	(601)	23.5	3.97(4.04)

- 재택근무, 단축근로, 시차출퇴근 등 직장에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여성의 사용비율이 높았음
 - 재택근무는 본인 사용의 경우 여성이, 배우자 사용의 경우 남성이 높아 모두 여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단축근로 이용 비율도 여성이 높음
 - 시차출퇴근은 본인 사용은 남성(47.2%)과 여성(43.7%)이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배우자 사용은 남성(64.1%)이 여성(39.7%)보다 높아서 여성 배우자의 이용률이 높음
 - 무급휴직은 본인 여성 24.6%, 배우자인 경우 남성이 27.0%로 여성이 무급휴직을 한 사례가 남성보다 높았음

〈표 II-3-8〉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돌봄을 위한 제도 이용 여부

구분		재택근무		단축근로		시차출퇴근		무급휴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본인	남성	(151)	53.0	(138)	31.9	(159)	47.2	(173)	12.1
	여성	(121)	66.1	(137)	51.8	(126)	43.7	(142)	24.6
배우자	남성	(61)	78.7	(64)	56.3	(64)	64.1	(74)	27.0
	여성	(152)	59.2	(153)	34.0	(146)	39.7	(186)	23.7

주: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만 분석, 사례 수는 직장내 제도가 있는 경우의 수임

다.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중에서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높은 것은 공통적으로 자녀 생활습관 관리임. 그밖에 미취학 자녀는 스트레스 관리나 함께 놀아주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임. 반면 초중고생은 식사 챙겨주기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음
 - 코로나 이전에 집 밖에서 생활하던 시간이 길었던 반면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녀 일상

생활에 대한 관리, 놀이 활동 등이 모두 부모가 직접 하거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부담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미취학 자녀 놀이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함
- 코로나 이후 자녀 돌봄 부담은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연차,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이용도 대부분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에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관련하여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 또 가족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돌봄 공백 지원 방안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4. 조사 결과(3): 일과 경제생활의 변화

가. 일의 변화

- 경제활동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프리랜서/자유직으로 구분하여 일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함
- 임금근로자의 경우 “변화 없음”이 본인 남성 90.3%, 본인 여성 85.3%,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성이 88.5%, 여성이 83.2%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끼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표 II-4-1〉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의 변화 -임금근로자

		사례수	변화없음	유급휴직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이직	기타
본인	남성	(454)	90.3	2.6	2.6	1.3	0.0	0.9	2.4
	여성	(407)	85.3	2.5	6.4	0.0	0.2	2.9	2.2
배우자	남성	(227)	88.5	1.3	4.8	0.4	0.9	1.8	2.2
	여성	(654)	83.2	1.7	6.8	1.2	0.7	1.5	5.0

- 반면 프리랜서/자유직은 “변화없음”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고 “무급휴직” 비중이 높아짐
 - “무급휴직”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여성임. 본인인 경우 여성이 24.4%이며 배우자인 경우 남성이 32.6%로 남성의 배우자 중 1/3 정도가 무급휴직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II-4-2〉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의 변화 -프리랜서/자유직

		사례수	변화없음	유급휴직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이직	기타
본인	남성	(41)	63.4	2.4	14.6	4.9	0.0	4.9	9.8
	여성	(489)	53.7	0.0	24.4	2.4	6.1	0.0	13.4
배우자	남성	(43)	53.5	2.3	32.6	0.0	0.0	2.3	9.3
	여성	(53)	56.6	0.0	11.3	1.9	5.7	3.8	20.8

- 자영업자 집단에서 일의 변화를 보면 “변화없음”이 본인 남성 74.1%, 본인 여성 54.3%로 남성이 높음. 배우자의 일이 “변화없음”은 남성 55.0%, 여성 58.5%임. 임금근로자 집단과 비교할 때 자영업자의 “변화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변화의 내용을 보면 매출감소, 장기휴업이 높은 편임

〈표 II-4-3〉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의 변화 - 자영업자

		사례수	변화없음	장기휴업	폐업	업종변경	매출감소	기타
본인	남성	(50)	74.1	12.0	2.0	0.0	12.0	0.0
	여성	(35)	54.3	20.0	0.0	2.9	20.0	2.9
배우자	남성	(20)	55.0	20.0	0.0	0.0	15.0	10.0
	여성	(123)	58.5	14.6	0.8	1.6	13.0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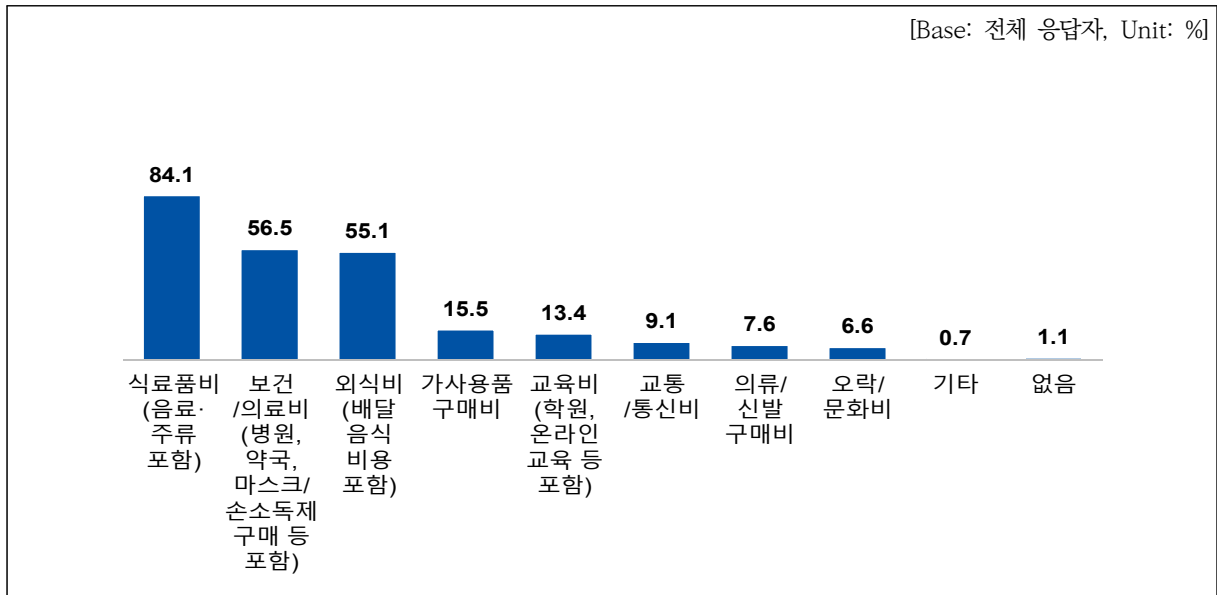
나. 가구소득과 지출의 변화

- 가구소득과 지출 변화는 소득이 동일함 51.8%, 소득 감소 46.7%로 소득이 감소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움
 - 집단별로 소득 감소 비율을 비교하면, 30대 이하 39.6%, 40대 49.2%, 50대 이상 57.1%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 비율이 더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벌이인 경우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 지출 변화는 동일함 35.9%, 증가 32.9%, 감소 31.2%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집단별로 지출 증가 비율을 비교하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 비하여 30대와 40대가 증가한 비율이 높았음.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높고,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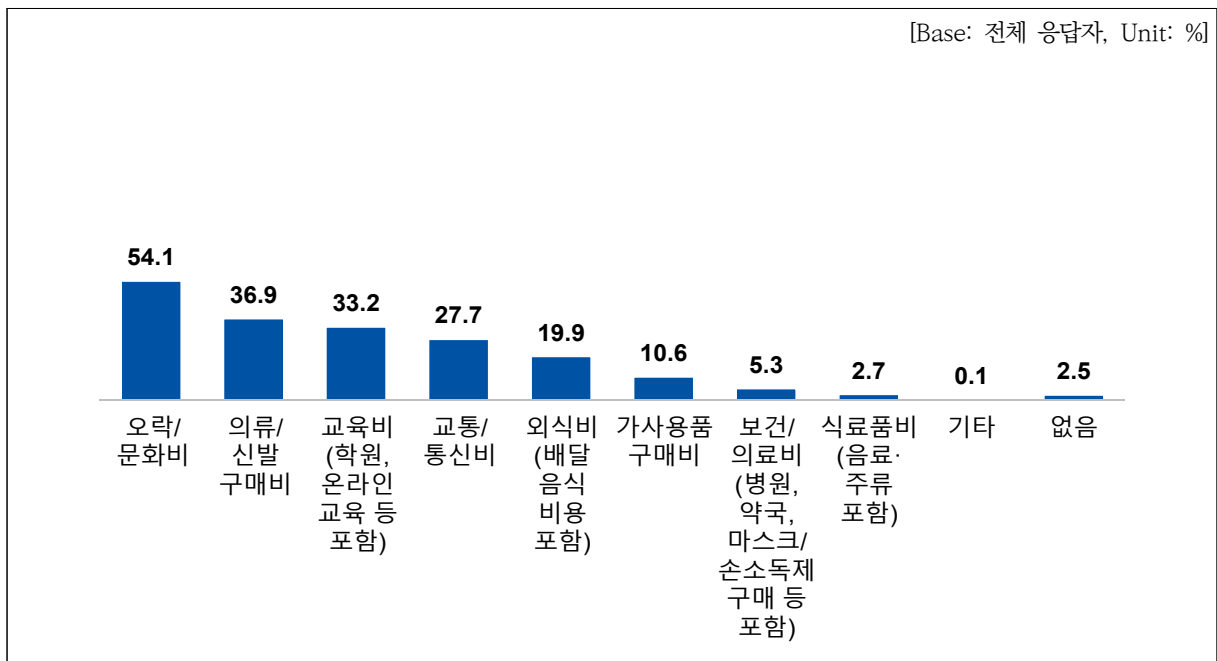
〈표 II-4-4〉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구 소득 및 지출 변화

			가구 소득 변화			가구 지출 변화		
			동일	감소	증가	동일	감소	증가
전체		(1500)	51.8	46.7	1.5	35.9	31.2	32.9
연령	30대 이하	(541)	58.0	39.6	2.4	36.0	26.8	37.2
	40대	(777)	49.8	49.2	1.0	35.4	31.5	33.1
	50대 이상	(182)	41.8	57.1	1.1	37.4	42.9	19.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0)	39.0	58.8	2.3	29.3	33.8	37.0
	300-499만원 이하	(479)	50.5	48.9	0.6	37.6	29.4	33.0
	500-699만원 이하	(381)	57.7	40.4	1.8	39.9	27.8	32.3
	700만원 이상	(240)	66.3	32.1	1.7	37.1	35.8	27.1
경제활동 여부	맞벌이	(724)	57.3	41.4	1.2	38.8	30.9	30.2
	외벌이	(698)	48.9	49.3	1.9	33.4	30.9	35.7
	경제활동 안함	(78)	26.9	71.8	1.3	30.8	35.9	33.3

- 지출 증가 품목과 지출 감소 품목을 조사한 결과, 지출 증가 품목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외식비 (배달음식포함)- 가사용품비의 순임. 지출 감소 품목은 오락문화비-의류신발구매비-교육비-교통 통신비 순임
 - 주로 집 밖에서 소비되는 오락문화비 감소가 가장 크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또 외출 자제 등으로 의류와 신발 구매도 대폭 축소됨. 교육비는 마지막에 줄이는 지출 품목임에도 감소 품목 중 3번째로 나타나 학원 휴원 권고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됨
 - 반면 가정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지출 증가 품목 중 1위가 식료품비, 3위가 배달음식 포함 외식 비용으로 나타남. 보건의료비용 지출이 증가한 것을 감염병 시기에 당연한 결과일 것임. 그 외에 가사용품구매비 지출이 4위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되면서 관련 용품 구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됨



[그림 II-4-1] 지출 증가한 품목



[그림 II-4-2] 지출 감소한 품목

다. 요약 및 시사점

- 일의 변화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변화없음 비율이 높아 가정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집단임. 반면 프리랜서/자유직은 변화없음 비율이 낮고, 무급휴직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자도 매출감소나 장기 휴업을 한 경우가 많았음

- 이는 코로나19의 가정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자유직 종사자에 대해 더 심각하였음을 의미함. 또한 프리랜서 직군 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무급휴직 비율이 높아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함
- 가구소득과 지출 변화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 비율이 높고 지출 증가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았음. 당초 소득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충격이 더 컸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5. 조사 결과(4): 가족관계의 변화

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

-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한 비율은 75.1%이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횟수도 증가한 비율이 67.1%임. 그러나 함께 놀이/여가활동시간증가는 30% 내외로 낮은 수준임. 이는 가족이 함께 집에 있고, 함께 식사는 하지만 놀이나 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 각자 따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 연령별로 50대 이상이 80.2%, 40대 77.7%이며 30대 이하가 69.7%로 가장 낮음.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함께 놀이/여가활동시간)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 비율이 낮아짐
 - (함께 식사하는 횟수)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 비율이 높음

〈표 II-5-1〉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변화 - 증가 비중

		사례수	함께 집에 있는 시간	함께 놀이/여가활동 시간	함께 식사하는 횟수
전체		(1500)	75.1	31.5	67.1
연령	30대 이하	(541)	69.7	33.5	62.5
	40대	(777)	77.7	30.8	68.5
	50대 이상	(182)	80.2	28.6	75.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0)	71.0	29.8	62.5
	300-499만원 이하	(479)	74.1	29.9	66.8
	500-699만원 이하	(381)	76.4	35.4	70.3
	700만원 이상	(240)	82.1	31.3	70.4
경제활동 여부	맞벌이	(724)	73.3	31.8	68.0
	외벌이	(698)	76.9	30.9	66.9
	경제활동 안함	(78)	75.6	33.3	61.5

나. 가족 간 갈등 및 스트레스 경험

- 가족 간 갈등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남. 갈등 경험이 있는 비율이 남성은 32.7%, 여성은 40.0%임
- 갈등을 겪은 가족원은 배우자가 가장 많으며, 여성 58.6%, 남성 64.3%로 남성이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표 II-5-2〉 가족원 간 갈등 경험여부

		사례수	그렇다	아니오
전체		(1500)	37.4	62.6
성별	남성	(600)	32.7	67.3
	여성	(900)	40.6	59.4

〈표 II-5-3〉 주로 갈등을 겪은 가족원(중복응답)

		사례수	배우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다른 가족	모든 가족	기타
전체		(561)	60.6	18.2	29.2	16.6	17.5	9.8	0.9	0.2
성별	남성	(196)	64.3	16.3	28.6	12.2	19.9	7.7	0.0	0.5
	여성	(365)	58.6	19.2	29.6	18.9	16.2	11.0	1.4	0.0

- 가족 갈등 원인을 보면 “식사 등 가사노동 증가로 인한 분담 문제”(27.8%), “각자의 생활습관문제”(21.7%), “TV, 오락 등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차이”(14.1%)의 순임
- 성별로는 전체와 차이가 없이 동일한 순서임.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0대 이하와 40대와 달리 “각자의 생활습관 문제(40.3%)”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5-4〉 가족 갈등 원인 - 1순위

		사례수	식사 등 가사노동 증가로 인한 분담 문제	각자의 생활습관 문제	TV, 오락 등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차이	육아 및 돌봄 분담 문제	가족 여가를 위한 외출 관련 이견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 준수 관련	기타
전체		(561)	27.8	21.7	14.1	11.4	8.4	8.0	8.0	0.5
성별	남성	(196)	28.1	21.9	15.3	12.2	8.7	5.6	8.2	0.0
	여성	(365)	27.7	21.6	13.4	11.0	8.2	9.3	7.9	0.8
연령	30대 이하	(197)	33.0	9.1	8.1	17.3	12.2	10.2	9.6	0.5
	40대	(302)	27.2	26.2	17.9	8.6	6.0	6.3	7.3	0.7
	50대 이상	(62)	14.5	40.3	14.5	6.5	8.1	9.7	6.5	0.0

-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는지 여부에 대해 본인 59.3%, 자녀 51.1%,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57.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여성이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5-5〉 우울감 및 스트레스 정도 - 그렇다(%) 비중

		사례수	본인	자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전체		(1500)	59.3	51.1	57.9
성별	남성	(600)	49.3	45.2	58.3
	여성	(900)	66.0	55.0	57.6
연령	30대 이하	(541)	60.8	48.8	57.3
	40대	(777)	59.6	52.6	58.4
	50대 이상	(182)	53.8	51.1	57.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0)	62.3	55.0	61.0
	300-499만원 이하	(479)	58.5	49.3	57.6
	500-699만원 이하	(381)	58.5	50.9	56.7
	700만원 이상	(240)	57.5	48.3	55.0

다. 요약 및 시사점

- 가족 관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함께 식사하는 횟수도 늘어났다는 사실임. 이러한 변화는 가족관계에 대하여 동전의 양면으로 작동함. 즉 물리적으로 가족이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도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소통과 상호작용이 늘면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음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됨.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가족 간 갈등 경험도 거의 절반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또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경우도 절반 이상임
-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에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함께 있다고 해서 되는 아니며, 가족일수록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에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6. 조사 결과(5): 감염병 대응 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감염병 확산 대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6개 항목 모두 필요성 있음(필요함+매우 필요함)이 80% 이상임.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은 81.1%로 가장 낮았음. “가족구성원 간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은 여성 91.1%, 남성 87.5%로 남성이 약간 낮게 나타남

〈표 II-6-1〉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지원 - 필요함 비중

		사례수	가족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지원	안전한 돌봄 지원	저소득 가정 등 감염병에 취약한 가족 지원	놀이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	가족 구성원 간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전체		(1500)	81.1	86.1	91.9	81.5	89.7	95.1
성별	남성	(600)	81.3	85.3	92.0	79.3	87.5	95.2
	여성	(900)	81.0	86.7	91.8	82.9	91.1	95.0
연령	30대 이하	(541)	81.1	91.9	93.2	86.3	93.3	95.2
	40대	(777)	81.9	84.2	91.0	80.1	88.8	95.2
	50대 이상	(182)	78.0	77.5	91.8	73.1	82.4	94.0
권역	수도권	(930)	80.4	86.1	91.8	81.2	89.2	95.3
	충청권	(136)	82.4	87.5	93.4	81.6	91.9	96.3
	경북권	(127)	81.9	76.4	89.0	74.0	82.7	92.9
	경남권	(174)	81.0	89.7	94.3	85.1	93.1	93.7
	전라권	(133)	84.2	89.5	90.2	85.7	92.5	96.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0)	82.8	85.0	91.3	83.5	89.3	96.3
	300-499만원 이하	(479)	81.6	85.8	92.3	79.3	90.2	94.4
	500-699만원 이하	(381)	81.6	86.1	91.6	83.2	90.6	95.8
	700만원 이상	(240)	76.7	88.8	92.5	79.6	87.9	93.3
최종학력	고졸이하	(260)	84.2	83.8	91.9	81.5	89.2	94.6
	대졸	(1033)	80.0	86.1	92.2	81.0	89.6	94.6
	대학원졸	(207)	83.1	89.4	90.3	83.6	90.3	98.1
경제활동 여부	맞벌이	(724)	80.7	89.5	92.1	84.5	90.9	94.8
	외벌이	(698)	80.9	82.7	91.5	77.7	87.8	95.0
	경제활동 안함	(78)	87.2	85.9	92.3	87.2	94.9	98.7

주: 필요하다+매우필요하다 응답 비율

Ⅲ. 가족 정책 의제 제안

1. 가족센터 기반 자녀 돌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개별 가족의 여건에 따라 자녀 돌봄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
 - 맞벌이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가구에서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특히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취약 가족은 온라인 학습 대응 미숙, 결식 등 아동 보호와 돌봄 문제 발생
 - 따라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개별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지원과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가족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군구 별로 센터가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비상시 가족의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관기관으로 역할 가능
- ※ 여성가족부는 현재 돌봄취약계층 가정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관에서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배움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가정방문 돌봄 인력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²⁾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아이돌보미 안심 보증제 도입

- 조사결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자원을 동원하여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며, 이는 감염병 시기 기관의 집단 돌봄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긴급돌봄은 평상시와 장시간 돌봄을 하기 어려우므로 기관 이용 시간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적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함
- 단, 감염 우려로 아이돌보미나 양육도우미 서비스 이용도 감소되었음을 고려할 때 가정 방문 돌봄 인력의 보건 위생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재가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여성가족부 2020. 4. 14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학습지원에 나선다-다문화·한부모·조손·맞벌이 가정에 학습도움 지원”

방식	사업	대상	지원 서비스 내용
가정내 돌봄 지원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원격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배움지도사	한부모 조손가족초등학생	-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 등 준비물 보조
	아이돌보미	맞벌이가정등 초등학생	- 학습 분위기 조성(소음 억제 등) - 돌봄대상아동의 학습상황 관찰 등
	건강가다센터	초·중학생	-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온라인 학습지원 (지역 교육지원청 연계)
시설 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4학년~중등 3학년	- 방과후아카데미 원격수업지원 - 원격수업지원으로 인력 부족 시 대학 근로장학생 활용 - 원격수업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망(Wi-Fi) 및 시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생	-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원격 학습 지원

- 아이돌보미는 이동이 많고 다수의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동과 아이돌보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감염병 안심 보증제” 등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긴급돌봄에 대응하는 조치 시행³⁾

3. 자녀 돌봄 책임의 여성 회귀에 대한 대응 필요

- 코로나 이후 자녀 돌봄 부담은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연차,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이용도 대부분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이 필요함

4. 가족관계 개선,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 조사결과 가족 갈등 경험도 높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남. 이에 코로나 블루, 고립 우울감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 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지원
- 또한 가족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가구 단위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 추진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로 인한 가족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 운영⁴⁾

5. 비대면 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 마련

- 조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에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많았음. 또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은 증가하였음에도 함께 놀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은 증가한 비율이 낮았음. 현재 센터에서 문화체험, 캠프, 교육 등 가족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고 육아품앗이 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모두 대면 방식임. 상담 역시 전화상담 이외에는 모두 대면으로 진행됨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가족 사업에서 비대면 방식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비대면 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개발도 필요함

3) 여성가족부 2020.2.28.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2020.4.2. 보도자료 “개학·개원 연기에 따른 여성가족부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4) 여성가족부 2020.5.18.보도자료. “코로나로 지친 가족, 마음 방역을 도와드려요-가족상담전화, 심리정서상담서비스 개시”

6. 코로나19 상황이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했다고 하나,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 대비 5% 가량 감소했다고 보고됨. 이는 가정폭력 발생이 감소했다기보다는 발견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가정폭력 상담소 휴관으로 전화상담만 가능해진 상황, 아동학대의 경우 이를 발견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들(학교, 아동기관,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전문가)과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향후 팬데믹 기간 동안,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학대, 폭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대면서비스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7. 감염병 시기 취약한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우선 고려 필요

- 취약한 가족은 감염병 시기 고용불안정, 소득감소, 결식, 돌봄 공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주거여건에서 온 가족이 하루종일 지내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건강가정기본법 위기가족 긴급지원 규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8. 부모나 가족의 직접 돌봄 지원을 위한 고용 분야 제도 개선

- 직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제 개선, 재택근무 활성화 및 재택근무 여건 지원 등 고용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도 필요함
- 가족돌봄휴가제 개선
 - 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검토 필요
 - 감염병 등 긴급 상황 시 이용 가족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 현행 제도는 아동을 기준으로 직계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음. 감염병 심각 단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확대가족 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명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코로나19가 가족,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확산임. 일부 IT기업, 공기업 위주로 활용되던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인식'으로나마 보편화된 것은 긍정적임. 하지만 여전히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춘 기업만 가능했음. 재택근무 관련 시스템의 미비, 위계적 조직문화로 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히나 위급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업에 심어주었음. 하지만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의 활용이 다소 확대됐지만 아직 미흡함
 - 재택근무 필요성 증대와 활성화 필요에 대비해 재택근무의 효과 및 문제점, 재택근무가 가족생활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모든 산업 및 업종에서 긴급 상황 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작업이 필요함
-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권리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향후 고려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와 가족 관련 언론보도

□ 돌봄 문제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	머니투데이	2020-06-17	코로나19 경제충격→아동빈곤... "돌봄체계 강화해야"
2	동아일보	2020-06-15	서울시 '휴관 권고'에... 요양시설 "어르신 방치하란거냐"
3	KBS	2020-06-12	"아이 함께 보살펴요"... '돌봄 품앗이' 호응
4	서울신문	2020-06-11	방치된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아이... 그만, 쉬고 싶었다
5	세계일보	2020-06-09	인천시 "코로나 급식 사각 아동에 도시락 나눠요"
6	한겨레	2020-06-08	'인공지능 돌봄'이 어르신 안전·정서 지킨다
7	경향신문	2020-06-07	코로나19에도 '이상무'... 특별한 돌봄교실에 가다
8	SBS	2020-06-01	"휴직도 고려해요"... 학교 · 유치원 문 닫자 '돌봄 공백'
9	세계일보	2020-05-29	돌봄교실 논란 속 아빠의 존재감
10	강원일보	2020-05-28	[강원포럼] 맞벌이 시대에는 맞돌봄
11	서울신문	2020-05-26	'3분의2를' 지키고 싶지만... 돌봄은 훌쩍제 안 되잖아요
12	디지털타임스	2020-05-20	독거노인 고독감 줄이고 정서 치료...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13	한국일보	2020-05-20	"살려줘" 외치면 AI가 119 신고...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 눈길
14	민중의소리	2020-05-16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19가 일으킨 '대란'의 희생자들
15	뉴스1	2020-05-12	'긴급돌봄' 받는 서울 유아, 1주일새 70% 급증
16	세계일보	2020-05-11	"돌봄 여력 더 없는데"... 등교 재연기에 학부모 당혹
17	연합뉴스	2020-05-11	'이미 한계' 맞벌이 부모 "더는 방법 없는데... 애들은 무슨 죄냐"
18	충청일보	2020-05-11	멈춰야 할 간병 사각지대의 비극
19	서울경제	2020-05-10	코로나 돌봄휴가도 '여성 쏠림'
20	서울경제	2020-05-10	가정의 달 무색한 '간병의 굴레'
21	MBN	2020-05-07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 수요... 교육 현장 '곤혹'
22	연합뉴스	2020-05-04	다가온 등교 수업... 돌봄 지친 부모들 기대 반 걱정 반
23	세계일보	2020-05-03	학교 못 가는 아이들... 2명 중 1명 '나홀로 집에'
24	경향신문	2020-05-03	초등생 47% "낯엔 어른 없이 집에"
25	단비뉴스	2020-04-29	코로나로 초토화한 '삶의 종착역' [전염병이 드러낸 한국사회 밑바닥] ⑧ 요양원·요양병원
26	파이낸셜뉴스	2020-04-29	유치원생 긴급돌봄 급증... 비용 놓고 갈등
27	연합뉴스	2020-04-26	[코로나19 100일] 전대미문 '육아전쟁'... "아이 돌보는 상황도 재난"
28	일요신문	2020-04-24	"차라리 자가격리 됐으면..." 코로나19 '지옥' 워킹맘들의 하소연
29	경남도민일보	2020-04-23	다시 전환된 돌봄의 가족 책임
30	MBN	2020-04-23	등교 미뤄지면서 직장인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10만건 넘어
31	뉴스1	2020-04-19	'원격수업 혼자서 어떻게...' 긴급돌봄 참여 초등생 급증
32	한겨레21	2020-04-18	[제1309회] 코로나 사각지대 요양원... 93살 아버지가 머물 곳은 있을까
33	티브이데일리	2020-04-17	박솔미, 코로나19 속 고충 토로 "일주일에 21번 밥 차려"
34	경향신문	2020-04-15	맞벌이 부부 절반 '돌봄공백' 경험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35	세계일보	2020-04-08	코로나 돌봄공백... 워킹맘 부담 더 커
36	세계일보	2020-04-03	저녁돌봄 안되는 '온종일돌봄'
37	연합뉴스	2020-04-01	직장인 43% "개학 연기된 자녀 돌봄 부모·친척에 맡긴다"
38	서울신문	2020-04-01	코로나 탓에... 손주 육아 조부모 허리 '휘청'
39	매일경제	2020-04-01	연차 바닥나고 가족 볼넷 없어도 학부모 80% "긴급돌봄 안보내요"
40	경향신문	2020-04-01	"조부모·친척이 아이 본다" 43%...유급휴가 주는 사업장은 19%뿐
41	머니투데이	2020-04-01	길어지는 휴교·휴원, 깊어가는 할머니 주름
42	경향신문	2020-03-31	돌봄휴가 무한정 쓸 수 없고, 주변 도움도 한두 번...어린 자녀 둔 맞벌이 '멘붕'
43	한국일보	2020-03-31	온라인 개학에 학부모들 "자녀 수만큼 PC 사야 하나" 발 동동
44	이데일리	2020-03-31	"이젠 온라인수업 관리까지 부탁할 판"...궁지 몰린 맞벌이부모
45	뉴스1	2020-03-06	"모여 놀다 감염되면 어떡해요"...외면받는 긴급돌봄교실
46	연합뉴스	2020-03-02	"맞벌이 76%, 코로나19로 육아공백...최대 구원처는 부모님"
47	서울경제	2020-03-02	코로나19로 개학연기에 직장인 4명중 3명 "아이 맡길 곳 없어요"
48	헤럴드경제	2020-03-02	코로나 개학연기 직격탄...끼니걱정 늘어난 아이들

□ 교육문제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	노컷뉴스	2020-06-12	코로나19 '방역 사각' 어린이집..."적어도 유치원처럼은"
2	뉴시스	2020-06-09	[오늘의 책]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교육의 민낯...해법은?
3	연합뉴스	2020-06-07	'방과후수업' 코로나 딜레마 "등교도 겨우" vs "기왕 가는데"
4	문화일보	2020-05-27	453곳은 연기... 등교해도 주1~2회 수업 '무늬만 개학'
5	동아일보	2020-05-26	인근 초등-유치원 학부모들 "27일부터 등교, 어찌 되나"
6	머니투데이	2020-05-25	"애들 보내야하나"...등교 앞둔 유치원·초등 학부모 불안 여전
7	쿠키뉴스	2020-05-23	학부모 10명 중 7명, 등교개학해도 '가정학습' 병행 의향
8	경향신문	2020-05-20	[경향신문·공공의창·피एम아이 공동기획]학부모 10명 중 7명 "온라인수업으로 교육 격차 커질 것"
9	경향신문	2020-05-19	유치원 "수업일수 더 줄여달라" 목소리 커진다
10	헤럴드경제	2020-05-13	학부모들 "온라인개학, '수업·학습과제 챙기기' 어렵다"
11	경인일보	2020-05-12	[교육부, 개학연기 '후폭풍']입시계획 또 틀어진 고3... '학사일정 또 바꾸는' 학교들
12	동아일보	2020-05-12	학평-중간고사 줄줄이 밀려... 입시준비 해맨 고3 "차라리 재수"
13	국제신문	2020-05-11	원격수업 길어져 수시모집 준비부실 불가피...수험생 대혼란
14	조선일보	2020-05-11	학부모에겐 자녀 돌봄 부담 덜어줘야 학생들에겐 학습량 조절·정서교육 보완 필요
15	한국일보	2020-05-11	"5월 내 등교 땀 대입 일정 변경 없다"지만... 고3들은 속 탄다
16	중앙일보	2020-05-08	등교냐 가정학습이냐, 학부모에 사실상 선택권 준다
17	연합뉴스	2020-05-07	"아직 2주일 버텨야하는데"...콩나물 돌봄교실 '한계'
18	대전일보	2020-04-30	초등 저학년 부모들 '꼴찌 개학' 걱정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9	서울신문	2020-04-26	초등생 94% “어른이 도와줘요”... 현실이 된 ‘부모 개학’
20	서울경제	2020-04-26	학부모 10명 중 9명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 있다”
21	중앙일보	2020-04-24	온라인 학교수업 들으려, 아이들은 아침9시 학원으로 간다
22	울산종합일보	2020-04-23	울산지역 온라인 개학...원활한 소통 뒤 학부모 고생은 두 배
23	뉴스1	2020-04-20	학부모에게 온라인 개학 가장 힘든 점 물었더니...‘독박 육아’
24	뉴스1	2020-04-19	엄마 개학 현실에 “과제수업 위주 저학년 부모 도움 필수”...고민만 거듭
25	뉴스1	2020-04-18	초등 1~3학년 온라인 개학, 돌봄수업의 함정...‘기대 반 우려 반’
26	영남일보	2020-04-18	맞벌이 부부, 코로나궤 온라인 개학에 아이 걱정 ‘태산’한숨만
27	세계일보	2020-03-31	‘탁상 행정’에 한숨쉬는 부모들

□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등 일 관련 문제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	아시아경제	2020-06-15	[일의 혁명]일 개념·공간·형태, 해체·재조립된다...“코로나 끝나도 재택”
2	아시아경제	2020-06-15	[일의 혁명]회사에...‘내 자리’가 없다
3	뉴스1	2020-06-14	코로나에 연차사용 ‘극과 극’...“이미 소진” vs “언제 쓰지?”
4	아유경제	2020-06-10	부동산 기획특집[아유경제_기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산업·경제 변화 속 ‘주택’은?
5	무등일보	2020-06-09	광주은행, ‘초등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 적극 동참
6	경향신문	2020-05-27	공무원 돌봄휴가 ‘자녀’→‘가족’...최대 10일
7	브릿지경제	2020-05-26	돌이 벌어 더 모으려면... 통장도 소비도 ‘일심동체’ 코로나19에도 슬기로운 맞벌이생활
8	데일리경제	2020-05-25	정부, 공무원등 공직사회 재택근무등 탄력 근무제 시행
9	머니투데이	2020-05-25	고용부의 ‘선견지명’? 코로나 잡은 특별연장근로·가족돌봄휴가
10	중앙일보	2020-05-25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공무원 근무 일상이 달라진다
11	한국일보	2020-05-22	코로나가 끌어 올린 가계소득 ‘서글픈 역설’
12	파이낸셜뉴스	2020-05-22	임직원 복지 개선하는 저축은행
13	오마이뉴스	2020-05-20	코로나 19 시대의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여기가 ‘사각지대’
14	지디넷코리아	2020-05-13	트위터, 포스트 코로나19 준비...무기한 재택근무 가능
15	서울신문	2020-05-12	육아휴직 쓴 공무원, 셋 중 한 명은 남성인 시대
16	오마이뉴스	2020-05-09	‘코로나 19’로 투잡 뛰어난 가장들, 낮엔 ‘사장님’ 밤엔 ‘알바’
17	뉴스1	2020-05-06	“아프면 집에서 일해야”...유연근무제·가족 돌봄비 활용 장려
18	스마트경제	2020-05-03	달라지는 저축은행 업계... ‘다닐 맛’ 나는 직장 신평속도 확산
19	서울신문	2020-04-08	육아는 엄마 몫? 코로나19 무급휴가 엄마가 42.9%
20	연합뉴스	2020-04-06	휴원·휴교로 난감한 부모들...가족돌봄휴가비 신청 5만건 넘어
21	MBC	2020-03-20	개학 연기에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급증’

□ 가족관계 문제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	조선일보	2020-06-17	코로나가 식구 찾아왔네
2	조선일보	2020-06-16	코로나 여파, 직장가진 부모 40%가 스트레스고위험군
3	동아일보	2020-06-16	끝까지 혼육 강변하며... “딸 사랑한다”
4	한겨레	2020-06-15	‘창녕 아동학대 사건’ 어머니가 친딸 학대한 원인은 복잡
5	노컷뉴스	2020-06-12	코로나 집콕'에 아동학대 11%↑...비대면 '공백'
6	에듀인뉴스	2020-06-12	참담한 아동학대 멈추려면...경기교사노조 “돌봄공백, 국민·사회적 연대해야”
7	한국일보	2020-06-1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학대 비극 막으려면, 서로가 아이들 더 세심히 살펴야”
8	경향신문	2020-06-11	코로나 휴교 탓...가정폭력에 더 노출된 아이들
9	파이낸셜뉴스	2020-06-03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 심해져"... 일부 전문의 상담도
10	투데이코리아	2020-06-03	코로나 장기화에... 성인남녀 10명 중 9명 “코로나 블루 심해졌다”
11	연합뉴스	2020-05-19	"코로나19 여파...20~40대 직장맘 52%, 스트레스 고위험군"
12	조선일보	2020-05-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13	뉴스1	2020-05-06	청소년 72% "친구들과 단계 관절 힘들어"
14	서울신문	2020-04-26	가정폭력 4.9% 줄었다고?... “일상도 통제, 신고조차 어렵다”
15	한국일보	2020-04-10	'신종 코로나' 확산 초비상 '거리두기'로 범죄 신고도 줄었네... 코로나의 역설
16	세계일보	2020-04-07	집에만 머물자 학대 노출...학교 못 가 도움 못 청해
17	서울경제	2020-03-23	'사회적 거리두기' 한달...코로나보다 '집콕'이 더 무서운 가정폭력피해자들
18	문화일보	2020-03-19	코로나가 가족 뭉치게 했나... 가정폭력 5% 줄었다

□ 정부지원관련 문제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	서울신문	2020-06-14	지원금 탐내는 뻔뻔한 부모 많아... 시설 아동들 소원도 쏘뽀 뭉였다
2	매일경제	2020-05-19	“내가 애 키우는데, 前 남편에 재난지원금”...이의신청 7만건
3	한국일보	2020-05-13	재난지원금 100만원 상한에 “다자녀 우대한다더니” 불만
4	한국경제	2020-05-05	"무조건 세대주 위임장 내라니"...재난지원금 못 받는 집 수도룩
5	연합뉴스	2020-04-26	"직장 관두고 애들 학원도 끊었는데 재난지원금은 언제..."
6	매일경제	2020-04-20	이마트 안되고 노브랜드선 되는 '돌봄포인트'...분유는 또 결제불가
7	국민일보	2020-04-16	“아동돌봄쿠폰 어디에 써요?” 우왕좌왕

□ 다문화가족 교육 문제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	한국일보	2020-05-31	코로나19가 높은 언어 장벽...이주 여성의 고군분투 ‘한국어 배우기’
2	경남도민일보	2020-05-25	중도입국 다문화 자녀 힘겨운 원격수업
3	서울경제	2020-04-12	반값잡은 원격수업..다문화가정 교육 공백 위기
4	한국일보	2020-04-10	“온라인 개학으로 다문화가정 중고생 학습 결손 굉장히 심각... 대학생 멘토링 제도 시행해야”

| 발표



토론

강주현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본부장)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변화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강주현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인류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과정에서 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전국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각급 학교의 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돌봄공백과 관계단절 등 코로나19가 가족에게 주는 위협과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가족분야에서의 위협과 기회¹⁾

위협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각급 학교의 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 · 코로나19로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내부자원이 부족한 취약가구의 어려움 증가 ·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이 증가하면서 부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이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 이로 인해 부부간, 가족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짐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 등 심리적 건강문제 발생, 불법도박·음주 증가, 인터넷중독, 자살증가 우려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고 정책 및 의료 등에서 배제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내 돌봄 책임이 강화되면서 부부간 역할분담 및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확대 · 가족 간 대화기법, 갈등해결 등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욕구 증가, 이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가족 상담 방법의 다양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 · 우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마을단위 지역사회공동체 강화를 통한 마음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마을돌봄체계 구축 기회

1)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 p4~5.

2.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센터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휴관 ~ 4차 휴관 : 2월 6일 ~ 3월 22일 · 5차 휴관 : 3월 22일 ~ 별도 명령 시까지
직원 근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직원 조정 근무, 재택근무 시행
프로그램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지원사업 :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 초등 긴급돌봄 실시, 가족품앗이 활동은 소규모 또는 각 가정 내 개별활동으로 진행 · 방문교육지원사업 : 4월 30일까지 중단, 5월 1일부터 운영 · 한국어교육 : 오프라인으로 운영 도중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 · 그 외 부부교육, 부모역할교육, 아버지역할지원사업 등 기타프로그램 :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격의 기준을 완화하고 총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휴교로 인한 양육 공백 지원 필요

○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적극 운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맞벌이가정의 돌봄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임. 지역사회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벌이가정의 돌봄공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IT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은 자녀의 온라인 학습지원과 관련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센터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배움지도사파견), 다문화사례관리사업 등을 통한 지원 필요

○ 가족갈등, 코로나 블루 등 다양한 심리·정서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우울문제, 잠재되어 있는 가족갈등의 표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으로 인한 트라우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문제 등 다양한 심리문제에 대한 적극적 상담이 필요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의 기회

-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조치는 센터의 사업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는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비대면 방식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좀 더 많은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온라인콘텐츠 개발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해 역할 수행 필요

포스트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정책 의제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시기,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라이프, 뉴 노멀 시대의 달라진 삶에 대해 조망하고 분석하는 논평과 연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가족생활과 가족정책 의제에 대한 서베이를 통한 조사 분석과 연구가 발표된다는 것은 가족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가족 경제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특히 젠더 관점에서 돌봄 공백과 가족 경제(노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 연령별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 자녀 돌봄 부담의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밀한(돌봄 자녀의 연령에 따른) 정책과 프로그램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긴급돌봄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예상하듯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의 변화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용 불안정이 드러난 점도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연구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연구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족정책 의제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아 이에 대한 토론과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가장 아쉬운 점은 포스트 코로나 혹은 팬데믹 상황의 가족정책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 대상인 표본 가구 선정이나 표본 배분을 저소득 분위, 비경제활동 인구, 한부모 가족 등에 더 할애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다. 이는 비단 이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가족정책’의 범위와 여성가족부 또는 가족센터의 정책 및 프로그램 대상 선정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와 우리 정부의 ‘가족정책’에서 상정하는 ‘가족’의 ‘표준’은 ‘자녀를 둔 부부’인 3인 혹은 4인 가구로 압혀진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에 의하면 2019년 부부+자녀 가구 비중은 29.6%로 2017년 31.4%에 비해 1.8% 포인트 감소했고, 1인 가구는 28.6%에서 30.0%로 1.4% 포인트 증가했으며, 기타 가구 형태(부부+부모,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등)는 7.1%에서 7.4%로 0.3% 포인트 증가했다. 부부+자녀 가구가 28.4%인데 비해 1인가구, 부(모)+자녀 가구와 기타 가구 형태는 48.4%에 이른다. 가족정책 논의에서 가족의 변화를 디폴트로 놓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때마다 우선적인 가족정책 의제는 부부+자녀 가구의 돌봄 문제로 회귀하는 역설을 지적하고 싶다.

돌봄 공백이 ‘새로운 위험’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위험’인 가족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새로운 위험’이 되는 가족보다 정책의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비해 간헐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조부모와 실업 혹은 게임이나 알콜 중독인

부 또는 모,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돌봄 공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경제 활동을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인 혹은 피고용자인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돌봄 공백은 이전의 돌봄 공백을 증폭시키는 ‘팬데믹 사회적 위험’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일상이었지만 그나마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스란히 폭력과 학대의 장에 더 오랜 시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역시, 상존하면서도 피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그러한 위험이 표면화된 사건이면서 병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돌봄의 위험이 심각한 사례들은 저소득, 실업, 가족해체, 중독 등 다양한 가족의 문제가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정부의 가족정책 의제나 가족센터의 가족 대상 프로그램들은 자녀 돌봄 서비스(긴급돌봄이나 아이돌보미), 가족 상담, 비대면 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아쉽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정책 의제에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취약한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 의제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가족의 긴급돌봄이나 아이돌보미서비스보다 후순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가족정책의 대상인 ‘가족’의 범위가 ‘부부+자녀’ 가구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돌봄 공백의 영향이 보다 큰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하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의 영향이 큰 가족을 정부와 기관이 발굴해 낼 수 있어야 하고, 가족센터는 그러한 가족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정책 의제에서 ‘돌봄’과 ‘가족’을 다루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노동 대체, 플랫폼 노동과 지속적인 고용 불안정 상황에서 대안적인 ‘소득’ 보장제도 혹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앞당겨지는 것을 목도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 ‘기본돌봄’의 의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적정소득보장이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논의를 통해 Kittay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적정한 돌봄이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적정 돌봄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통합적이고 적정한 돌봄 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족에게 가족정책이 ‘기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변화 대응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경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본부장)

언론동향과 지역센터와의 소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하던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변화 현상들을 구체적인 조사자료로 보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제안하신 몇 가지 의제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하 한가원)의 대응노력과 연계해서 향후 과제를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착안사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족센터 기반 자녀의 돌봄수요 파악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돌봄공백’이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가원에서도 자체 TF를 마련하여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를 포괄하는 원스탑 거점서비스를 지향함에도 센터의 근거리에 사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커뮤니티 중심 서비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주었다. 발제자가 제안한대로 서비스 수요파악을 위해서는 회원관리를 하지 않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비스의 운영은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개별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계하는 서비스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한가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가정을 전수조사하여 가정의 돌봄요구 프로파일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 중이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가족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생활SOC 복합화 대상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제시하고 좀 더 많은 커뮤니티에 설치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관계 개선,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 또한 코로나19 초기부터 대두되던 서비스 요구였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역설적으로 가족간의 거리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가까워짐에 따라 가족갈등이 촉발되었다고 생각한다.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사노동의 재적응이 증가하였고 발제문에도 제시되었듯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다시 집약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 와중에도 가족들의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단결하고, 가사노동 증가와 답답함에 힘들어할지언정 해외에 유학하던 자녀들을 귀국시켜 생활하는 등 가족단위별 생존전략이 강화되는 가족주의 강화의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한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족갈등을 상담하기 위해 가족상담 매뉴얼을 9월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한가원 내 가족상담단과

지역의 전화상담서비스 활용을 위해 “가족관계에도 방역이 필요해요”라는 카드뉴스를 개발·배포한바 있다. 거시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가족체계의 새로운 적응을 독려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 이웃과 소통하기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비대면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화상담과 현재의 온라인 상담은 다회기 심층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비대면 상담방안을 강구하고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담자 및 상담사 모두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좀 더 명확한 대응매뉴얼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안사항이 매뉴얼 연구결과에 담기길 기대한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 개학연기, 불규칙한 등교로 집에 홀로 있는 아동들의 식사문제, 정서적 방임, 사회적 거리두기 뒤에 아동학대 은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가원은 2020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징후파악을 위한 실무자들의 훈련매뉴얼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한 지역센터의 대응매뉴얼로 전환하여 연구용역을 발주 중이다. 특히 한부모가족들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공백까지 생각해본다면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이미 사례관리하고 있는 가정 내 홀로있는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모니터링 서비스(배움 지도사, 키움보듬이 등 활용)를 시범사업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아동과 라포가 있는 공신력있는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가정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가족센터SOC 사업을 통해 확산될 가족센터 서비스 개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가족센터는 그간의 (교육, 상담 등 소프트웨어적) 서비스 중심에서 (하드웨어적 서비스인) 공간제공을 통해 소규모 모임, 쉼, 문화활동, 자조모임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목적교류소통공간’을 필수 공간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한가원은 새로운 가족센터의 공간배치를 이해시키고 지자체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 공무원대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목적 교류소통공간’의 필요성과 기능, 그리고 이를 극대화할 배치인데 가급적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는 1층에 설치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돌봄기능의 공간과 연결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는 대표적인 공공다중이용시설로 현재 대부분 휴관하거나 온라인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이들 시설과 같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가족센터는 전체 건물 휴관 시에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운영 결정이 타 시설에 의존적이 될 확률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1층 중심의 긴급돌봄서비스 공간을 활용을 위한 설계와 운영매뉴얼을 구축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역과 출입통제 시 공공건물 전체를 휴관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긴급하게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원은 7월 중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가족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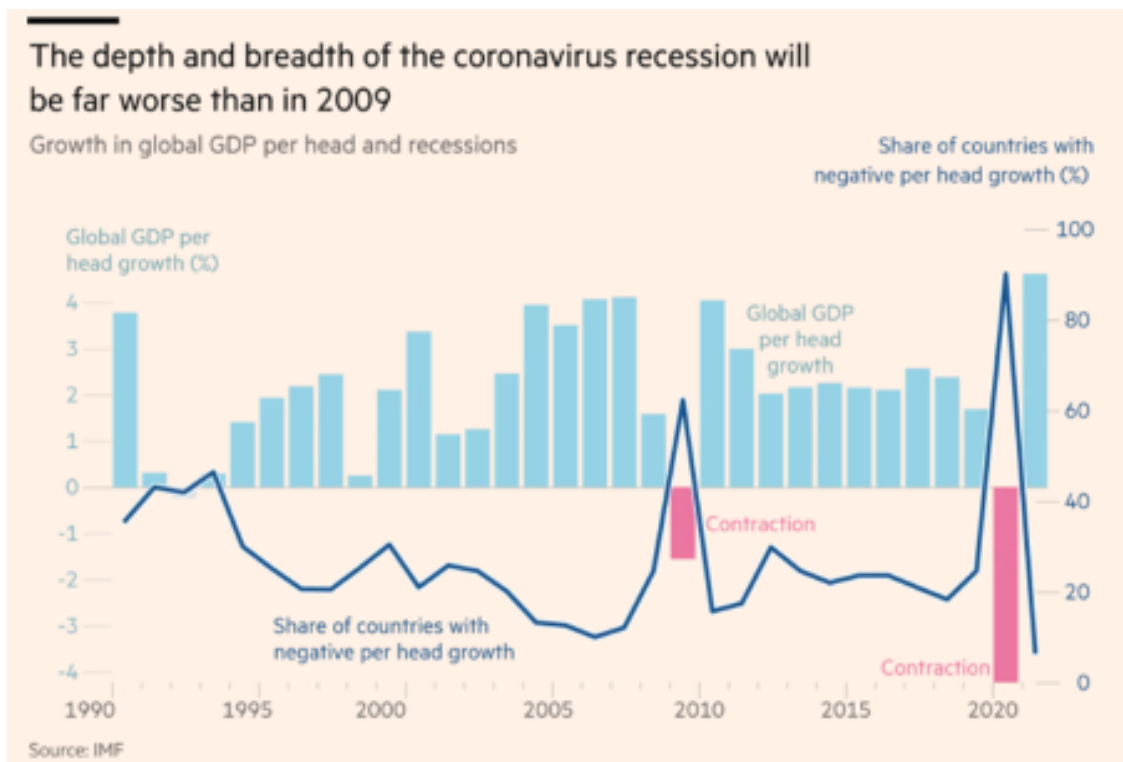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 디바이드’와 가족정책 과제

이원재 (LAB2050 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1. 코로나19의 경제 및 고용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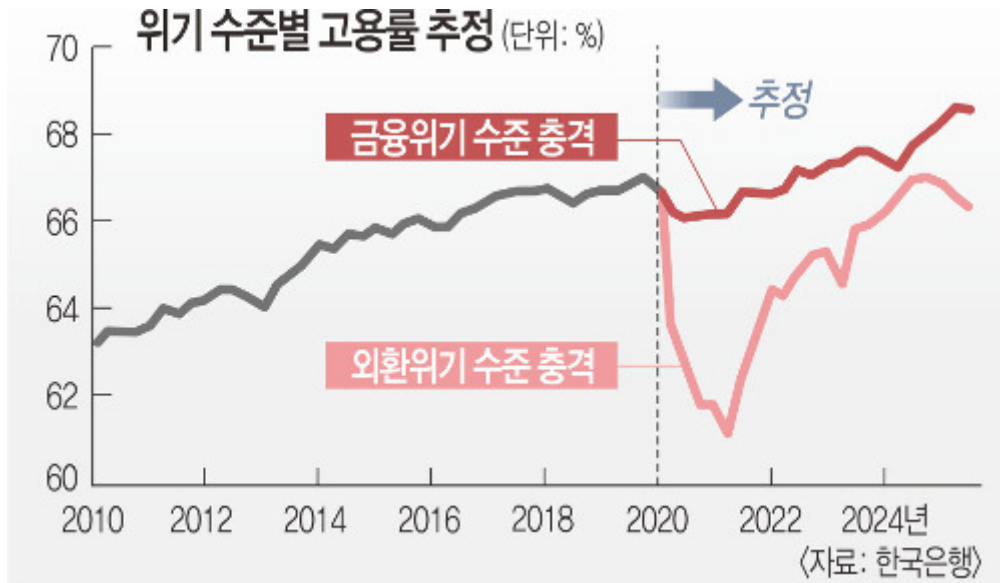
1.1. 세계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낮췄다. IMF는 2019년 말, 2020년 세계경제가 2.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은 1.7%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세계경제는 -3.0%, 선진국 경제는 -6.1%로 크게 하강할 것이라고 전망을 바꿨다. 불과 두 달 뒤인 6월, 세계경제는 -4.9%, 선진국 경제는 -8.0%로 역성장할 것이라며 더 악화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말 2.0%로 점쳐지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4월에는 -1.2%로 전망되었고, 6월에는 -2.1%로 더 낮게 전망됐다.

1.2. 국내경제



한국은행은 2020년 6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8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서 향후 경제 영향을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충격이 앞선 두 위기와 비슷한 정도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영향을 가져올 경우, 이전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2~4년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9년 1분기 이후) 고용률은 8분기 동안 이전 수준을 밑돌았다. 고용은 월평균 16만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분기 이후) 고용률은 17분기 동안 이전 수준을 밑돌았다. 고용은 월평균 96만 5천명 줄었다.

2020년 5월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모두 1999년 5월 이후 동월 기준 최고 수준이다.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비 58만 5천명 늘어 석달째 10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고용률은 55.7%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기간이 지나 경제활동이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회복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주로 만들어내는 원천인 제조업 고용이 위기 이전부터 이미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부가가치가 650% 높아졌으나, 고용은 7%만 늘었을 뿐이다. 자동화로 이미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었다. 향후에도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이 늘더라도 제조업 등의 좋은 일자리 대신, 점포 없는 1인 자영업이나 플랫폼 노동처럼 서비스업의 잘게 쪼개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 코로나 디바이드

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불평등 확대

코로나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앞당겨진 거대한 분절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을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부를지 모른다.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시대의 노동자들이 아래 네 개의 계급으로 나뉘었다고 했다.

The Remotes(원격 근무자): 전문 관리 기술인력.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할 수 있고, 화상 회의와 전자문서를 통해 하는 일에 익숙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다.

The Essentials(필수 인력): 의사, 간호사, 배송기사, 창고 및 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육아 및 노인 돌봄 노동자 등.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인력이므로 경제적 타격은 적지만, 감염 위험이 크다.

The Unpaid(해고자): 마트,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급휴직 중이거나

직장을 잃기 쉽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임금이므로 해고 즉시 경제적 위기를 겪는다.

The Forgotten(잊혀진 사람들): 이주민, 죄수,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지내는 사람들.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지내며 높은 감염 위험에 시달리지만 사회의 관심은 받지 못한다.

한국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The Remotes에는 교수, 교사, 대기업 화이트칼라, 첨단기술 엔지니어 등 고학력층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 화이트칼라들이 대거 추가될 것이다. 이들은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새롭게 얻을 가능성도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회를 찾자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기도 한다. The Essentials는 미국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The Unpaid에는 이들 이외에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자/사업자가 포함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안정적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The Forgotten에는 농촌과 건설현장의 외국인노동자 등이 포함될 것이다.

불평등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들 격차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부터 확대되던 것이다.

* 이중노동시장 - 안정 노동계층 vs 불안정 노동계층

기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경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디바이드 -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 vs 그렇지 않은 사람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은 온라인 활용에 능통한 이들에게 경제적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없는 이들은 더 빨리 뒤처지게 될 것이다.

* 돌봄 양극화 - 성인 남성 vs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돌봄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다. 어린이집, 요양병원,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등 시설돌봄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초고위험영역으로 여겨지게 된다. 교육기능과 함께 돌봄기능을 상당부분 갖고 있던 학교시스템도 위기를 맞는다. 가정과 개인에게 돌봄 책임이 돌아오면, 이는 전통적인 돌봄 주체인 여성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돌봄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과 노인 등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돌봄 주체의 능력과 경제적 여력에 따라 돌봄 수준에는 상당한 수준의 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 건강격차 - 건강한 생산가능인구 vs 고령자와 환자

감염 뒤 사망 위험이 높지 않은 건강한 이들은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는 데 큰 타격을 입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건강취약계층은 이동 및 집단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격차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혐오 등의 심리적 거리두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2.2. 코로나19 이후 고용불평등

한국은행 역시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는 산업·직업별로 비대칭적 고용 충격을 주면서 취약 부문 고용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1961~2017년 175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염병 발생 이후 소득분배 지니계수는 상당 기간 상승을 지속했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주로 식당 종업원과 대면 판매원처럼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업군과 임시 일용직, 저학력 근로자, 여성, 소규모 사업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5월 서비스업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 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주요 고용 업종은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의 가속화도 예상된다. 음식점과 마트에서는 계산원 자리를 키오스크와 자동계산대가 대체하고 있다. 비접촉을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레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서비스업 자동화의 경우, 이미 관련 기술은 도입되어 있었으나, 인건비에 비해 비용이 덜 들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관행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이미 상당 수준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 제조업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조업 현장에서도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추가 자동화가 한층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일어난 '분산 일터'의 실험은 어쩌면 '비접촉'이라는 바이러스의 명령으로 나타난 초유의 사회 실험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 실험들은, 우리 사회 생산방식 및 고용구조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구조적 변화를 향한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대공장 근무체제를 기본으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일터에 노동자들이 모여 자본의 위임을 받은 경영자들의 관리감독 아래 일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이런 기본 틀은 대공장 중심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고용의 중심으로 바뀐 21세기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인간 노동의 상당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최근까지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부분은 시장 원리라기보다는 관습에 의해 사회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보험 등 20세기 유럽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한 노동 및 복지제도들은 이런 관습을 더 강하게 지지했다. 노동 측에서 보기에, 이런 관습을 급격하게 바꾸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 자본 측에서 보기에, 하나의 기업조직체계를 다른 기업조직체계로 완전히 바꾸려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불리 관습을 바꾸려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비접촉’이라는 명령이 이런 기본 틀을 흔들고 있다. 밀집근무와 대면회의 관행이 상당수 일터에서 깨져나가고 있다. 밀집근무가 정상이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비정상이며, 대면회의가 중요하고 정상적인 회의이며 원격회의는 덜 중요하고 비정상적인 회의라는 관념도 무너지고 있다.

이후 대면근무가 필요없다는 판단이 정립된다면, 기업은 직접 고용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단시간 고용 등을 더욱 선호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방향을 바꿔나갈 가능성도 높다. 이는 노동시장 내 고용·임금 격차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3. 부양과 돌봄의 2차방정식

발제자의 가족정책 의제 중 단기과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나, 코로나19 이후 바뀐 경제 및 고용 환경 아래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 전체적으로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수 부모가 가족돌봄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시설돌봄 등 기존의 패러다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에 근거해 세 가지 중장기 과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확대 논의

- 금액 및 대상 확대(초등, 청소년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 아동수당을 저출산 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돌봄에 대한 기여소득으로 간주해 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유노동 및 유연근무

- 재택근무는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노동시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노동, 파트타임, 프리랜서/자유직 노동을 수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임금노동자 중심의 기존의 사회보험체계를 넘어서서, 보편적 부모보험 논의 등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 궁극적으로 여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려면, 남성의 부양부담이 함께 줄어들면서 돌봄노동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생애 전체 부양부담 감축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일상의 변화를 초래한 지 5개월이 넘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위험에 어떻게 긴급하게 대처할 것인가 뿐 아니라 한 발 떨어져 장기적 전망에서 가족생활과 돌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자녀 돌봄,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감한 바들을 잘 뒷받침해준다. 지난 5개월 동안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녀 돌봄과 가사 부담이 커졌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가족갈등이 증가하거나 가족관계가 악화된 사람도 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휴원, 휴교 및 온라인 개학으로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특히 맞벌이가족에게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은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자칫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체벌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격교육이 시작되면서 가정 내 ICT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다면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데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는 교육의 격차로 이어진다.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 재학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53.9%는 자녀 수보다 적은 수의 미디어 기기를 갖추고 있었다. 원격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부모가 느끼는 부담에는 이러한 교육 격차에 대한 불안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번 조사결과는 가족 내 자녀돌봄 공백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아쉬움이 있다. 먼저,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돌봄의 공백 실태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노인 복지시설이나 여가시설도 모두 휴원되거나 폐쇄되면서 노인돌봄도 공백이 발생했을 텐데 가족이 이러한 공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보육시설 등원과 학교 개학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는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찾기 어렵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했겠지만, 그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평소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적은 자녀들은 특히 생활습관, 시간관리, 미디어기기 사용 측면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서적 학대나 체벌과 같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위기에 대처하는 마지막 안전망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때 보육시설, 학교, 학원, 요양기관 등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폐쇄될 수 있으며, 가족은 사회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으로 사회적 감염 위험을 예방하는 시기에 가족은 “언택트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위험을 공유한다. 특히, 주거상태가 취약하거나 구성원이 많은 가족은 더욱 불리하다.

이렇게 가족이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기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취약하다. 코로나19 동안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만7세 미만 아동 대상)과 가족돌봄휴가를 연 최대 10일까지 지원한 것 이외에 가족돌봄을 특별히 지원한 정책은 없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가족돌봄휴가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휴교한 경우로 신청대상을 제한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일부만 정책 지원을 받았다. 가족정책의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가족정책 의제들에 대부분 동의한다. 특히 가정 내 공평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성과 비대면 가족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가족 내 돌봄이 증가하는 시기에 가족원 모두가 가사와 돌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젠더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족문제는 잠재되어있다가 위기 시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족 레질리언스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서서히 발달한다. 따라서 평상시에 가족 레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활용한 비대면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illegible]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3156-7000(대) FAX. 02-3156-7007 www.kwdi.re.kr